

# 말뭉치자료(Corpus)에 근거한 현대중국어 'V下'구조의 의미 분석

柳秀京\*

---

## ◁ 목 차 ▷

---

- |                  |                    |
|------------------|--------------------|
| I. 서론            | Ⅲ. 'V下'구조의 사용현황 분석 |
| Ⅱ. 'V下'구조의 의미 분류 | 1. 결합동사 분석         |
| 1. 관련이론          | 2. 의미별 사용빈도 분석     |
| 2. 'V下1'         | Ⅳ. 결론              |
| 3. 'V下2'         |                    |
| 4. 'V(A)下3'      |                    |
- 

## I. 서론

현대 중국어에서 'V下'구조는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을 나타내는 보어성분 '下'가 앞의 동사성 성분에 결합되어 행위의 이동방향을 묘사하는 구조로 분석된다. 그러나 실제 언어사용 중에서 'V下'구조는 상술한 이동의미 외에도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그 분류가 줄곧 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본고는 'V下'구조의 의미를 결합동사에 따라 분류하던 기존의 연구방법에서 벗어나 인지이론을 이용하여 'V下'구조의 의미가 생성된 기제를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분류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의 경우 대부분 그 분류에만 주목하였을 뿐 각 의미별 실제 사용현황에 관한 분석이나 구조와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함이 있었다. 이에 본고는 말뭉치자료 분석을 통해 'V下'구조의 규범화된 의미와 실제 사용현황과의 차이를 주

---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수료

목하여 사용빈도가 높은 주요 의미와 사용빈도가 낮은 부차적 의미가 존재함을 증명하고 이러한 현상이 시사하는 바를 논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에 있어서 본고는 말뭉치(Corpus)자료 분석을 통한 통계분석법을 채택하였다. 말뭉치자료 분석은 과거 영어학계나 국어학계에서 주로 채택되었으나 최근 중국어학계에도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강병규(2007)는 말뭉치를 이용한 언어연구가 언어규범과 실제 사용간의 차이를 밝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어떠한 어휘의 규범화된 다수의 기능 중에서 어떤 기능이 더 많이 사용되고 우세한 분포를 보이는지, 그 구체적인 분포나 통사적 기능, 다른 단어와의 결합 등을 조사하는데 있어 가치를 지닌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말뭉치자료 분석법의 장점은 본고의 연구목적에도 부합한다고 보인다. 본고에서 사용한 말뭉치 자료는 북경대학어언연구중심(北京大學語言研究中心, Center for Chinese Linguistics PKU)에서 구축한 말뭉치(北京大學語料庫)<sup>1)</sup>로 언어자료의 대표성, 규모성, 균형성을 고르게 갖춘 중국어 표본이며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북경대 말뭉치의 현대중국어말뭉치 중에서 '소설'류를 범위로 설정하여 검색된 'V下'구문 2,300개를 분석용 언어자료로 삼았다.

## II. 'V下'구조의 의미 분류

본고는 'V下'의 통사적 생성기제를 어법화(grammaticalization)로 보고 있다. 太田辰夫(1987)는 방향을 나타내는 후조동사(后助動詞)<sup>2)</sup>는 연동복합동사에서 두 번째 위치한 동사가 허화되어 생성되었다고 지적하였고 梁銀峰(2007) 역시 최초로 방향동사로 구성된 연동구조가 재분석 과정을 거쳐 단순방향보어로 변화하였다

1) 북경대학어언연구중심 말뭉치는 8억3천자(고대, 현대 포함, 2007년 기준)규모로 그 중에서 현대중국어말뭉치의 경우 魯迅, 老舍, 巴金 등의 문학작품부터 90년대 작가의 작품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 《人民日報》, 교과서,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술자료, 실용문, 대본까지 수록되어 있다.

2) 이는 명칭상의 차이이며 현재 방향이동을 나타내는 방향보어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즉, 어법화가 진행되면서 연동구조인 'V下'구조의 두 번째 동사인 '下'가 내용어(content word)에서 기능어(function word)로의 변화였으며 이 가운데 통사적 기제로 재분석(reanalysis)이 작용하였다는 것이다<sup>3)</sup>. 'V下'구조의 재분석 과정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V][\text{下}(O)] \rightarrow [V\text{下}][\text{(O)}]$$

盧莉(2006)는 수, 당대에 출현한 'V下'구조에서 'V'는 대부분 [+이동]의 성질을 지닌 이동동사이며 목적어는 주로 장소목적어나 행위자목적어에 국한되었으나 송대에 이르러 [-이동]자질의 동사와 장소목적어 외의 사물목적어도 출현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V下'구조에서 'V'성분이 유추(analogy)과정을 통해 아래와 같이 범위를 확장하였고 이는 동시에 'V下'구조의 어법화의 심화를 입증한다.

$$[V(+이동)\text{下}][O(\text{장소})] \rightarrow [V(-이동)\text{下}][O(\text{사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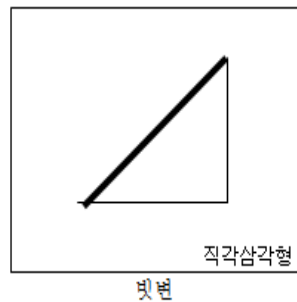
그렇다면 'V下'구조의 'V'성분은 이동동사에서 어떠한 의미특질을 지닌 비이동동사류로 유추된 것인가? 이러한 유추과정에는 어떠한 규칙이 존재하는가? 인간의 어떠한 인지적 사고가 이러한 유추과정을 인가하고 추진한 것일까? 본고는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V下'구조의 의미를 분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우선 아래와 같이 관련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관련이론

Hopper & Traugott(1999)은 어법화에 관여하는 인지적 기제로 '회용적인 추

3) Hopper & Traugott(1999)은 어법화 진행에 재분석과 유추라는 이중기제가 작용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론'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동의어와 다의어의 사용, 대화의 함축을 포함한 의미변화, 은유, 환유 등의 개념을 포함한다. 본고는 '下'의 어법화에 은유적 기제가 작용했다고 보며 이를 Langacker(1999)가 제시한 윤곽(profile)과 바탕(base), 영역(domain)의 전환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Langacker가 제시한 바탕이란 의미구조상에서 지시(designation)<sup>4)</sup>대상이 부각 되도록 배경이 되는 인지구조로 언어서술에서 관찰되는 영상의 첫 차원을 말한다. 반면, 윤곽은 의미구조에서 지시되는 개체로 객관적 장면에서 초점기능을 하는 특별한 정도의 현저성을 지닌 구조이며 도식화된 그림에서 굵은 선으로 표시된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빗변의 의미극인 [빗변]은 직각삼각형에서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윤곽이 부각된 부분이다. 즉, 빗변(윤곽)은 공간영역에서 직각삼각형을 둘러싸고 배경을 경계 짓는 상자(바탕)안에서 높은 현저성을 지닌 부분으로 해당 화자가 서술하고자 하는 지시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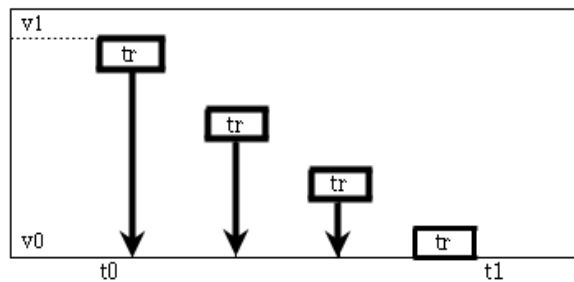


본고는 상술한 바탕과 윤곽의 개념을 이용하여 'V下'구조의 의미와 기능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4) 전체 바탕과 윤곽으로 선택된 어떤 하부 구조 사이의 관계로 서술내에서 어떤 개체에 대하여 특별한 수준으로 현저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말한다.

## 2. 'V下1'

'V下1'는 실제 공간영역에서 이동대상의 하강이동을 표현한다. 이동동사 '下'의 의미를 바탕(base)으로 하며 그 안에서 탄도체(이동대상)의 상하이동 과정에 윤곽을 부여한 것이다. 이로써 해당 서술은 방향성과 이동성이 부각된다. 'V下1'기능은 [+방향][+이동]의 특징을 지니며 상대적으로 행위의 완성이나 결과, 지속 등은 서술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바탕의 역할만 한다. 'V下1' 기능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sup>5)</sup>과 같다. 그림에서 tr은 탄도체(trajector)를 의미하며 횡적지표는 시간을, 종적지표는 공간을 의미한다. 즉, t0의 시간에 v1 위치에서 시작된 하강이동은 t1의 시간에 v0, 즉 종점(혹은 지면)에서 종료된다.



'V下1'기능은 'V到+O(장소)里 / 上', '從O(장소)V下', '把O<sub>1</sub>V下(O<sub>2</sub>) (O<sub>1</sub>대상, O<sub>2</sub> 장소)' 등 장소목적어를 수반한 구조로 변환할 수 있는데 이는 이후에 서술할 'V下2'와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본고는 'V下1'를 이동영역이나 이동대상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2차 분류하였다.

### 1) 'V下1-1'

행위주체(施事)의 공간적 수직이동을 나타낸다. 주로 '落、墜、走、跑' 등의 이

5) 본고에서 제시한 모든 도식화 그림과 용어는 Langacker(1999)가 제시한 도식화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이를 'V下'구조에 응용한 것이다.

동동사<sup>6)</sup>나 ‘跪、躺、坐’ 등의 자세동사와 결합한다. ‘V<sub>T</sub>1-1’의 80%가량이 예문(1)과 같이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SV<sub>T</sub>’구조이며 목적어를 가지는 ‘V<sub>T</sub>O’구조는 2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때 목적어로는 예문(2), (3)와 같이 장소목적어(기점, 종점)가 오기도 하고 예문(4)과 같이 행위자 목적어가 오기도 한다. [+이동]의 의미자질을 가지기 때문에 ‘V<sub>T</sub>到+O(장소)里 / 上’이나 ‘從O(장소)V<sub>T</sub>’ 구조로 변환이 가능하다.

- (1) 一進屋, 母親就對我喝道: “跪下!” (梁曉聲《一個紅衛兵的自白》)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께서 내게 소리치셨다. “무릎 꿇어라.”)
- (2) 我忙跳下床, 高興地迎上去。(王朔《過把癮就死》)  
(나는 서둘러 침대에서 뛰어내려 기쁘게 맞이했다.)
- (3) 我們走下地下通道, 邊走邊說。(王朔《一半是火焰, 一半是海水》)  
(우리는 지하도로 걸어 내려가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 (4) 小船也靠了岸, 跳下小蜂兄弟。(張煒《海邊的雪》)  
(배가 기슭에 닿자 소봉 형제가 뛰어내렸다.)

## 2) ‘V<sub>T</sub>1-2’

‘頭’, ‘手’, ‘腰’ 등 신체부위를 이동대상으로 하여 해당부위의 하강이동을 나타낸다. ‘彎、俯、垂、低、放、伸、耷拉’ 등 이동동사와 결합하는데 이들 동사 중 ‘放’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사가 목적어와 의미적 연관성이 강하여 고정적인 구조를 형성한다. 본 기능의 86%가 예문(5), (6)과 같이 ‘V<sub>T</sub>O’구조로 신체부위가 내부논항에 분포한다. 신체부위가 주어위치에 분포하는 ‘SV’구조(예문(7))는 13%를 차지하며 예문(8)의 ‘把OV<sub>T</sub>’구조의 사용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6) ‘落’, ‘墜’처럼 동사 자체가 수직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走’, ‘跑’와 같이 비수직이동을 나타내는 동사로 구분된다. ‘V<sub>T</sub>1-1’의 경우 수량면에서 수직이동동사가 다수를 차지하며 비수직이동동사의 경우 장소목적어나 전치사구를 통해 장소를 표현하여 그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경향을 지닌다.

- (5) 同學們都羞慚地垂下了頭。(梁曉聲《一個紅衛兵的自白》)  
 (학우들은 모두 참담하게 고개를 숙였다.)
- (6) 他彎下腰，從床底下拉出那只箱子來，懶懶的。(劉心武《吉日》)  
 (그는 허리를 숙여 침대 밑에서 그 상자를 마지못해 꺼냈다.)
- (7) 听着听着，她的頭垂下了。(梁曉聲《舟之父》)  
 (이야기를 듣다가 그녀의 머리가 떨어졌다.)
- (8) 陽春沒說完，臉一紅，把頭低下。(蔡測海《遠處的伐木聲》)  
 (양춘은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 3) 'V下1-3'

음식물을 이동대상으로 하여 해당 음식물의 섭취이동을 묘사한다. 섭취의미를 지닌 동작동사 '喝、咽、吞、吃、灌'등과 결합하며 'V下O'구조를 전형적인 구조로 가진다. 이 경우 목적으로 대부분 대상(음식물)이지만 장소가 올 수도 있다. 때로 예문(11)과 같이 이동대상이 추상적인 감정(비분, 아픔)으로 투사되어 감정을 억누르고 삼키는 의미를 표현하기도 한다.

- (9) 兩人各自喝下一口白蘭地。(王浙濱《生爲女人》)  
 (두 사람은 각자 브랜드를 한 모금씩 마셨다.)
- (10) 他端起半碗烈酒，咕咚地灌下肚，又湊向我，(張承志《黑駿馬》)  
 (그는 절반정도 담긴 술을 들어 콧속으로 쏟아붓고는 다시 내 쪽으로 다가왔다.)
- (11) 這些天我咽下多少口气，也不敢招惹人家一星半点，你倒大吼大叫起來了？  
 (劉心武《一窗灯火》)  
 (그동안 나는 적잖이 분을 삼키면서도 조금도 말썽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네가 오히려 화를 내?)

### 4) 'V下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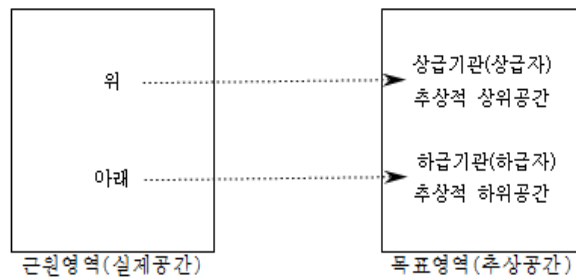
다양한 사물을 이동대상으로 하여 해당 사물이 아래로 이동함을 나타낸다. 주로 '投、扔、丟、卸、拋' 등의 이동동사와 결합하지만 '端、扶、挖' 등의 동작동사와

결합하기도 한다. 본 기능의 81%가 예문(12), (13)과 같은 'V下O'구조이다. '把OV下'구조는 대상목적어와 장소목적어가 함께 공기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 (12) 儿子“咚”地撞門進屋，甩下書包，在廁所前徘徊几个來回后，大叫：爸。  
 (徐坤《熱狗》  
 (아들은 “쿵”하고 문을 박차고 들어와 가방을 내던지고는 화장실 앞을 서성이다가 소리쳤다. 아버지.)
- (13) 当看到几个熟人的身影時，她偷偷流下了眼泪。(余華《一九八六年》  
 (낮익은 몇 사람의 형체를 발견하고 그녀는 남몰래 눈물을 흘렸다.)
- (14) 我抓住她的肩膀，把她拉下車，“你去哪儿？”(王朔《過把癮就死》  
 (나는 그녀의 어깨를 잡고 차에서 끌어내렸다. “어디 가는거지?”)

### 5) 'V下1-5'

상술한 'V下1'기능들이 실제공간을 이동영역(domain)으로 하여 이동대상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 것이라면 'V下1-5'는 영역의 전환을 통한 추상적인 영역의 이동을 의미한다. 현실공간의 위와 아래가 지위, 신분, 위치의 상하관계로 사상(mapping)되어 해당 공간에서 실제이동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공간적인 '위'는 상급기관(상급자)이나 추상적인 상위공간(전쟁의 전방)으로 투사되고 '아래'는 하급기관(하급자)이나 추상적인 하위공간(후방)으로 투사된다. 이러한 은유체계를 통해 생성된 목표영역(추상공간)에서의 탄도체(주체나 객체)이동을 본고에서는 'V下1-5' 기능으로 분류하였다.





아래 예문(15)에서 '發下'는 문서라는 이동대상이 '위'를 은유하는 기관에서 '아래'를 은유하는 자신에게로 이동했음을 묘사하고 예문(16)은 여종업원이 손님 앞이라는 추상적 상위공간에서 물러남을 '退下'로 표현했다.

- (15) 爲了寫這份報告，他翻閱了近几年各級機關發下的文件，突然惊奇地發現，大多數部門制定的政策是沒法用法律尺度去檢驗的。(田中禾《最后一場秋雨》)  
 (이 보고서를 쓰기 위해 그는 최근 몇 년 각급 기관에서 발송한 문건을 뒤적이다가 신기하게도 대부분 부서에서 제정한 정책이 법률의 척도로 검증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 (16) 女招待送來啤酒和礦泉水，揭開蓋，分別斟進兩只杯子，然後退下。(王朔《玩兒的就是心跳》)  
 (여종업원은 맥주와 생수를 가져와 뚜껑을 열고 각각 두 잔에 채운 뒤 물러났다.)

이동동사 중에서 이동방향이 [-수직]인 '走'나 '跑' 등 동사는 '下'와 결합할 경우 대부분 공간적인 상, 하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退'는 동일한 [-수직]의 의미이지만 추상적 공간의 상, 하 이동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특징을 지닌 동사들로 "退, 撤(退)"가 있다.

### 3. 'V下2'

'V下2'는 어법화 과정에서 '下'의 어휘적 의미가 퇴색(fading)되면서 새롭게 재분배된 의미를 말한다<sup>7)</sup>. '下'의 이동성과 방향성은 퇴색되고 행위완성을 표현하는 기능은 강화되면서 'V下2'는 [-방향] [-이동] [+완성]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어법화의 연속변이(clines)적인 특성으로 인해 'V下1'과 'V下2'기능 간에, 또한 '下2'

7) Happer & Traugott는 이러한 어휘의미의 퇴색과 새로운 의미의 형성을 의미의 재분배 혹은 이동이라는 개념으로 보기도 하였다.

기능 내부적으로 [+이동]의미자질의 접이적 상태가 존재한다. 아래의 예문에서 'V下1'과 'V下2'기능에 [+이동]자질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예문(17)은 전형적인 'V下1' 구문으로 잔의 이동과 그 방향을 중점으로 표현하여 [+이동]의 의미특질을 가진다. 반면 예문(18)의 '拔下'는 'V下2'기능으로 분리행위 과정에서 풀의 이동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下'가 나타내는 전형적인 상하이동의 방향과는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이동의미가 문장에서 서술하고자 하는 주요 지시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예문(17)과 차이를 가진다. 나아가 예문(19)의 '做下'는 'V下2' 기능 중에서도 비교적 어법화 진행이 심화된 구문으로 공간이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행위의 완성만을 표현하고 있어 [-이동]의미자질을 지닌다. 이러한 이동의미의 접이적 상태는 '下'의 의미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어법화 연속변이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입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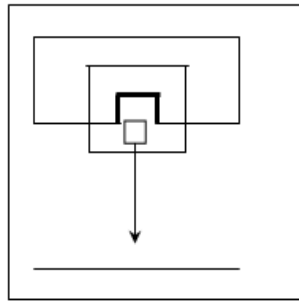
- (17) 柳萌砰地放下杯子, “你哼什么?” (張煒《柏慧》)  
 (류맹은 쿵하고 잔을 내려놓았다. “당신 뭐라고 웅얼거리는 거야?”)
- (18) 她彎腰拔下一根枯草, 將草莖插在小辮里。(鐵凝《哦, 香雪》)  
 (그녀는 허리를 굽혀 마른 풀을 뽑아 땅은 머리에 꽂았다.)
- (19) 人總是做下許多無法挽回的錯事後才學會解讀人生的。(廉聲《月色猙獰》)  
 (인간은 항상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잘못을 저지른 후에야 인생을 이해하게 된다.)

구조적으로 'V下2'는 더 이상 장소목적어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에 'V到+O(장소)里/上', '從O(장소)V下'구조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sup>8)</sup>. 아래에서는 인지적 기제를 근거로 'V下2'의 기능을 2차 분류 하였다.

8) 다만 분리와 획득기능의 경우 약한 이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把O從N(본체/이전 소유자)上V下'의 구조로 변환이 가능하다.

1) 'V下2-1'

'V下2-1'은 본체로부터 객체 일부의 분리를 묘사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탄도체의 하강이동을 바탕으로 하여 그 이동과정 중에서 낙하가 시작된 시점에 윤곽(굵은 선)을 부여한 것이다. 이로써 이동의 시작이 객체의 분리를 은유하게 되었다. 여기서 객체의 이동이나 이동방향은 바탕의 역할만 할 뿐 해당 서술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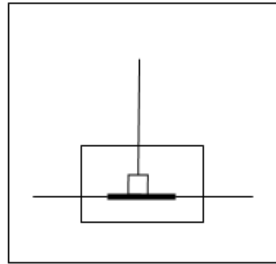


주로 분리의미를 지닌 동작동사 '砍、摘、剪、解、生'등과 결합한다. 목적어를 수반하는 'V下O'구조가 가장 전형적 구조(76%)로 나타났으며 분리객체가 외부의 향에 분포하는 예문(21), (22)과 같은 구조도 약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 他看到白雪走到日歷旁，伸手撕下了一張，然後回頭說：“明天是四月三日。”  
(余華《四月三日事件》)  
(그는 백설을 보고는 달력 근처로 걸어와 한 장을 뜯어낸 뒤 고개 돌려 말했다. “내일이 4월 3일이군”)
- (21) “南化”的牌子已經摘下，只剩下一个小小的留守處。(呂雷《火紅的云霞》)  
(“남화”의 간판은 이미 떨어졌고 작은 잔류사무소만이 남아있다.)
- (22) 我的頭髮，被母親一剪刀一剪刀地剪下，紛紛落地。(梁曉聲《一个紅衛兵的自白》)  
(내 머리카락은 어머니에 의해 싹둑싹둑 잘려져 바닥에 떨어졌다.)

## 2) 'V下2-2'

'V下2-2'는 모종의 객체를 획득한 결과를 묘사한다. 이동대상이 하강하여 지면에 닿는 순간에 윤곽을 부여함으로써 종점은 화자를, 이동대상의 도달은 객체가 화자에게로 이전되었음을 은유한다. 'V下2-2' 역시 '下'의 방향성이 상실되고 이동성이 약화된 반면 해당행위의 [+완성] 자질은 강화된다. 'V下2-2'의 기능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취득의미를 지닌 동작동사 '拿、得、買、收、奪、攻' 등과 결합한다. 이들 동작의 결과물인 획득대상은 구체적인 사물(桌子, 禮物, 錢)이 될 수도 있고 추상적인 것(勸說, 成果)이 될 수도 있다. 본 기능의 60%가 목적어를 수반하는 'V下O'구조이지만 예문(25)과 같이 객체가 외부논항에 분포하는 구조도 3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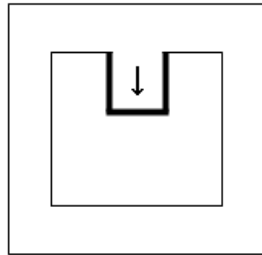
- (23) 當時， 院長買下桌子以後， 悠閑地在古老的橋墩底下和菜農討價還價。  
(畢淑敏《預約死亡》)  
(당시 원장은 탁자를 사고 나서 오래된 교각 아래에서 한가롭게 채소장수와 가격을 흥정했다.)
- (24) 我離開山寨的第三年， 也是冬天， 官兵終於攻下了山寨。(尤鳳偉《石門夜話》)  
(내가 산채를 떠난 지 3년이 되던 해, 역시 겨울이었다. 관군이 마침내 산채를 정복했다.)

- (25) “那這微波爐我收下了!”。(劉震雲《一地雞毛》)  
 (“그러면 이 전자레인지가 내가 받겠습니다!”)

### 3) 'V下2-3'

'V下2-3'은 객체의 함몰결과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함몰은 외부의 힘에 의한 형태변화를 의미한다. 중력의 작용하에서 함몰은 1차적으로 위에서 아래로의 함몰이 연상되며 이러한 인지적인 결과로 인해 'V下'가 함몰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본고에서 조사한 'V下'구문 2,300개 중에서 함몰의미의 예문은 1개에 불과하여 'V下'의 주요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함몰을 나타내는 형용사 '凹'가 '下'와 결합함으로써 본래 정태적인 상태묘사가 동태화 되어 함몰상태로의 완성(변화)를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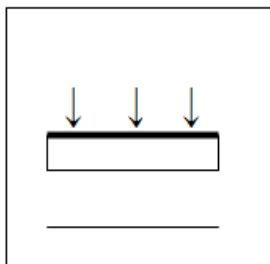


- (26) 床面相当寬，鋪着暗黃的篾席，蕎麥皮芯的枕頭，当中凹下一个半圓的小坑。(廉聲《月色猙獰》)  
 (침대는 상당히 넓고 짙은 황색의 죽석과 메밀로 속을 채운 베개가 놓여 있으며 중간에 반원모양으로 움푹 패어 있다.)

### 4) 'V下2-4'

'V下2-4'는 어떠한 힘이 사물, 상태, 감정에 압력을 가한 결과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압력은 중력방향과 일치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下'의 이동방향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V下'구조가 압력을 가한다는 의미를 은유하게 되었다. 아래 그림은

‘V下2-4’기능을 도식화한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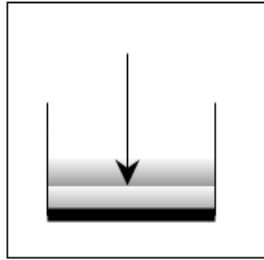


조사결과 ‘V下2-4’ 역시 사용빈도가 매우 낮은 것(6개 예문)으로 드러났다. 누르다 의미의 동작동사 ‘壓’, ‘按捺’등과 결합하며 대상인 목적어도 구체적인 사물보다는 추상목적어(일, 소리, 기세, 감정)가 자주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7) 媽媽決定立即壓下我的氣焰，她宣布說：（劉心武《我可不怕十三歲》）  
（어머니는 당장 나의 기세를 억눌러야겠다고 결정하고는 이렇게 선포했다.）
- (28) 我也按捺下煩躁，以同樣尊重的態度商討地說：“談談文學本身怎麼樣？比如文學觀念的嬗變……”（梁曉聲《表弟》）  
（나도 불안함을 억누르며 똑같이 존중하는 태도로 상의했다. “문학 자체를 논하는 건 어떨까? 예를 들어 문학관의 변천이라든가……”）

##### 5) ‘V下2-5’

‘V下2-5’는 모종의 객체가 일정 공간(용기)에 수용된 결과를 묘사한다. 용기에 사물이 담기는 과정은 물체가 위에서 아래(용기바닥)로 떨어져 차례차례 쌓여간다는 점에서 ‘下’의 방향과 일치한다. 이 때문에 은유를 통한 ‘V下’구조의 의미확장이 가능하다. ‘下2-5’의 수용기능은 ‘V下來’나 ‘V下去’ 구조에는 존재하지 않는 ‘V下’만의 기능으로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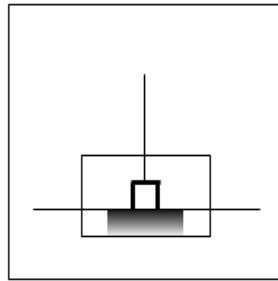
‘塞、盛、容納、裝’ 등 수용의미를 지닌 동작동사와 결합한다. 결합동사의 종류가 매우 제한적이며 주로 ‘S(수용공간)+V下+O(수용대상)’의 구조를 보인다는 특징을 지닌다. 예문(31),(32)와 같이 ‘V得(不)下’의 가능보어형식(주로 부정형)이 전체 예문의 67%를 차지하며 ‘V下O’나 ‘把OV下’구조의 경우도 대다수가 예문(30)과 같이 가능의미의 ‘能’과 공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9) 你的那一片浩瀚的空間容納了它，裝下了它，它就屬於了你。(張炜《柏慧》)  
(너의 그 넓은 공간에 그것을 수용하고 담아둔다면 그것은 너의 것이 된다.)
- (30) 其實用一个大盤子就能把全部內容盛下。(王小波《綠毛水怪》)  
(사실 큰 쟁반 하나면 전부를 담을 수 있다.)
- (31) 她選了好幾本，連哈克貝利·芬也在內，交了錢之後書包都塞不下了。(王小波《綠毛水怪》)  
(그녀는 여러 권을 골랐는데 심지어 허클베리 핀도 포함되어 있었다. 돈을 지불한 후에 가방에 다 넣을 수도 없었다.)
- (32) 他的心其實已容不下愛情。(張賢亮《綠化樹》)  
(사실 그의 마음은 이미 사랑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 6) ‘V下2-6’

‘V下2-6’는 행위의 완성을 통해 결과물의 생성을 묘사한다. ‘V下2-6’는 하강이동을 거쳐 종점에 도달한 이동의 종료와 그에 따라 수반된 결과에 윤곽을 부여한 것

이다. 아래 그림에서 행위의 결과는 짙은 색으로 표현하였으며 이동과정은 행위의 진행을, 이동종료는 행위의 완성을 사상한다. 결과물은 구체적인 사물(글, 사진, 금전)이 되기도 하고 추상적인 사물(우정, 재앙, 오명)이 되기도 한다. 결과의 생성은 실제로 이동성이나 방향성을 갖지 않지만 우리의 인지 속에서 결과물이 생기면 아래에 쌓인다는 측면에서 ‘下’와 방향이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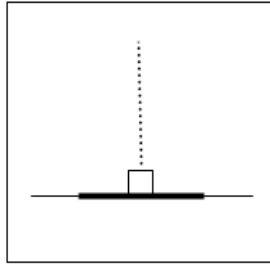
‘V下2-6’의 결합동사는 새로운 결과를 생성하는 의미특징을 지닌다. 결과물의 구체성 여부에 따라 “記、泉、拍、寫、抄”등의 기록류 동사와 “結、犯、惹、創、闖” 등의 추상동작동사로 구분된다. 전체 예문의 76%가량이 결과물을 목적어로 구현되는 ‘V下O’구조를 가진다. ‘V下’의 구조의 결합이 긴밀하여 예문(35)와 같이 관형어 형태로 사용된 예문도 상당수(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3) 三个月以后, 我寫下了自認爲是相当精彩的文章。(王蒙《庭院深深》)  
(3개월 뒤, 나는 스스로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글을 썼다.)
- (34) 他說, 這位趙先生是个很好的人, 是个很誠實的人, 他和他在那十几天中結下了友誼。(張賢亮《浪漫的黒炮》)  
(그는 조선생님은 인품이 좋고 성실한 분이어서 십 여일동안 서로간의 우정을 맺었다고 말했다.)
- (35) 人類自身對生命犯下的錯誤有誰懂得去哭泣呢!(韓春旭《背對命運的獨白》)  
(인류가 생명에게 범한 자신들의 오류에 대하여 누가 애통해 할 것인가!)



7) 'V下2-7'

'V下2-7'는 행위의 완성과 동시에 행위의 고정을 표현한다. 이 기능이 서술하고자 하는 지시대상, 즉 윤곽은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이동종점에 있다. '下'의 하강 이동은 행위의 진행을, 종점에 도착하여 고정된 상태는 행위의 완성과 고정을 은유한다. 고정은 동적인 행위가 정지된 행위의 고정(停下, 睡下), 공간적 고정(留下, 住下, 种下)외에도 행위의 완성이 확정됨을 강조하는 은유적 고정(找下, 做下)과 심리상태의 확정과 관련된 심리적 고정(定下, 許下, 認下)을 모두 포함한다.



'V下2'기능 중에서 결합동사가 가장 다양하여 구체동작동사, 추상동작동사, 심리동사 등이 모두 해당된다. 동작동사는 다시 의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분류2	의미	동사
구체 동작 동사	남기다	留、剩、扣、遺留
	모으다	積、存、備、積攢
	미루다	欠、拉2
	정지/거주	住、种、打(基础)、擺、停、站、安頓
	휴식	睡、歇
	일반동작	做、干、穿、談、讀、背、救、求、夸、找計、聯絡、替換
	추상동작동사	定、訂、應、狠、應承、默認、得罪
	심리동사	耐、忍

[남기다], [모으다], [미루다], [정지/거주]의미의 동사는 해당 동작을 통해 사

물이나 사람이 공간적으로 고정되는 의미특징을 지닌다. [휴식], [일반동작] 동사의 경우 ‘下’의 의미가 더 허화되어 행위의 완성이미가 강해진다. 추상동작동사, 심리동사는 동작성이 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동사들로 이들 동사와의 결합한 ‘下’는 한층 더 어법적인 기능을 가지게 되며 어휘적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V下2-7’ 기능은 ‘V下2’기능 중에서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한다. 구조적으로 동사의 목적어 수반여부에 따라 ‘SV下’와 ‘V下O’ 구조가 상용되며 (c)‘把OV下’는 2.3%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 (36) 想到這裡, 我不由自主地喝了一聲: “你停下!” (畢淑敏《翻漿》)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멈추시오!”)
- (37) 李大夫不由分說地定下了一个見面的日期。(池莉《來來往往》)  
(이 의사는 말할 틈도 없이 만날 날짜를 정해버렸다.)
- (38) 我橫下一條心!——干一次!(張抗抗《白罌粟》)  
(나는 마음을 다잡었다! 한번 해보자!)
- (39) 奶奶把黃油留下了, 可是一直沒有吃。(汪曾祺《黃油烙餅》)  
(할머니는 버터를 남겨두었지만 줄곧 드시지 않았다.)

#### 4. ‘V(A)下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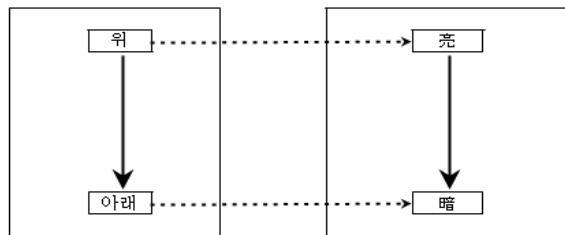
Hopper & Traugott(1999)은 어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미의 재분배를 거론하며 그 가장 전형적인 예로 영어의 “go”동사를 들었다. 이러한 공간과 시간개념의 은유관계에 관하여 Langacker(1990)는 이동이 함의하는 객관적인 장소적 지시점이 상실되었으며 이러한 상실은 화자의 시간적 관점에 대한 재배열로 대치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은 범언어적인 현상으로 현대중국어에도 이동을 나타내는 방향보어 중 일부가 상(Aspect)적인 기능을 가지는 예로 증명된다. ‘下’와 같은 의미류의 복합방향보어인 ‘下來’, ‘下去’는 공간적인 참조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적 관점으로 재배열된 후에도 시간상의 참조점을 중심으로 구간(時段)을 설정하여 해당 구간동안의 행위지속을 표현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예로 아래 예문 (40),

(41)을 들 수 있다. 그러나 'V下'는 참조점의 부재로 인해 이러한 지속의미를 표현할 수 없다.

- (40) 她在信中說，要我將這幾頁日記看后就燒毀，但我保留下來了。(曾卓《夢境》)  
 (그녀는 편지에서 이 몇 장의 일기는 본 뒤에 태워버리라 했지만 나는 보관해왔다.)
- (41) 只要這樣按部就班地學習、工作、生活，一步步走下去，不斷地提高自己，爭取做一個好黨員和紅色專家還有什么難處呢？(鄧友梅《在懸崖上》)  
 (이렇게 착실하게 공부하고 일하고 생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킨다면 좋은 당원과 명망있는 전문가가 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형용사는 상태가 완성(시작)되고 나서 해당 상태의 지속이나 종결에 관한 표현이 필수적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참조점이 없는 'A下3'구조도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조사결과 그 사용빈도(전체의 0.4%)가 매우 낮고 대부분 '下來'나 '下去'로 교체되어야 더욱 자연스럽다는 결과를 얻었다.

Lackoff(1990)는 [상태은유]에서 상태는 공간속의 한정된 영역이며 상태의 계속은 공간속의 이동을, 상태의 변화는 영역간의 이동을 은유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Lakoff & Japhson(1980)는 공간적 지향성(spatial orientation)이라는 개념에서 행복, 높은 지위, 좋은 감정은 공간적으로 위를 투영하고 그 반대의 개념은 아래를 투영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즉, 아래의 그림과 같은 투사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



‘A下3’에 출현하는 ‘松、安、靜、平、閑、暗、松弛’ 등 형용사가 소극적 의미인 것은 상술한 [상태은유]로 설명할 수 있다. 이들 형용사는 ‘下’와 결합하여 보다 적극적인 상태에서 현재의 소극적 상태로의 변화(완성)를 표현하며 이는 ‘下’의 이동 방향과 일치한다.

구조적으로 대부분 ‘SA下’구조이지만 일부 목적어를 가지는 ‘A下O’구조도 발견되었다. 후자의 경우 의미적으로 ‘AO’구조는 사동의미로 해석되며 목적어 성분의 음절이 길거나 서면어 문체이거나 혹은 ‘安心’, ‘安身’ 등 고정적인 동목구조리는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다.

(42) 天色暗下, 他叫堂房去街上買回一碗肉絲面, (廉聲《月色猙獰》)

(날이 어두워지자 그는 사촌에게 밖에 나가 쇠고기면을 사오라고 시켰다)

(43) 她了解我后才安下心, 我是典型的語言上的巨人, 行動上的矮子。(王朔《浮出海面》)

(그녀는 나를 이해한 뒤에야 비로서 안심했다. 나는 말하는데 있어서는 거인이지만 행동에는 난장이었다.)

### Ⅲ. ‘V下’구조의 사용현황 분석

#### 1. 결합동사 분석

본고에서 선정한 2300개 ‘V下’구문에서 방향보어 ‘下’와 결합하는 동사의 수는 243개임이 밝혀졌다. 음절수를 살펴보면 2음절 동사가 24개(9.9%)에 불과하며 대다수가 1음절 동사(90.1%)임을 알 수 있다. 이는 ‘下’가 1음절 동사와 결합하려는 뚜렷한 경향을 지녔음을 보여주는데 현대 중국어의 2음절화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趙元任(1980)은 ‘上’류 방향보어와 동사의 어휘적인 결합성향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실제적인 통계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문장성분 중 관형어 기능에서 ‘V下’와 ‘V下來(去)’ 구조 간의 사용빈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下’의 의미별로 결합하는 동사의 종류(예문수량

기준)을 분석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동 동사	자세 동사	동작 동사	추상동작 동사	심리 동사	형용사	총계
V下1-1	주체이동	158	340					498
V下1-2	신체부위	185		1				186
V下1-3	십취이동			59				59
V下1-4	객체이동	398		40				438
V下1-5	추상이동	13		1				14
V下2-1	분리			196				196
V下2-2	획득			88				88
V下2-3	함몰						1	1
V下2-4	가압			6				6
V下2-5	수용			18				18
V下2-6	결과			66	40			106
V下2-7	고정			639	36	5		680
A下3	상태완성						10	10
총계		754	340	1114	76	5	11	2300
		32.8%	14.8%	48.4%	0.3%	0.2%	0.5%	

상술한 표와 같이 방향보어 '下'는 전체의 95%가량이 [+동작]의 이동동사, 자세동사, 동작동사와 결합하며 'V下1-1'기능부터 'V下2', 'A下3'에 이르기까지 어법화가 심화될수록 결합동사의 이동성과 동작성은 점차 약화됨을 알 수 있다. 즉, 어법화 정도가 낮은 기능은 [+이동],[+동작]성질의 동사와만 결합하는 반면, 어법화가 진행될수록 결합동사의 범위가 [-이동],[-동작]의 동사류 및 형용사까지 이동함을 알 수 있다.

## 2. 의미별 사용빈도 분석

앞서 분류한 '下'의 의미를 근거로 'V下'구문 2,300개의 사용빈도 및 구조를 분류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의미	V下	VFO	把OV下	합계	비율	
下1	下1-1	주체이동	392	103	0	495	21.5	51.6 %
	下1-2	신체부위이동	25	167	1	193	8.4	
	下1-3	섭취이동	15	43	1	59	2.6	
	下1-4	객체이동	48	338	33	419	18.2	
	下1-5	추상적 상하이동	10	10	0	20	0.9	
	소계		490	661	35	1186		
下2	下2-1	분리의미	42	150	5	197	8.6	48%
	下2-2	획득의미	28	53	7	88	3.8	
	下2-3	함몰의미	0	1	0	1	0.1 <sup>9)</sup>	
	下2-4	가압의미	1	3	2	6	0.3	
	下2-5	수용의미	8	9	1	18	0.8	
	下2-6	결과생성의미	24	82	1	107	4.7	
	下2-7	고정의미	274	397	16	687	29.8	
	소계		377	695	32	1104		
下3	A下3	상태완성	7	3	0	10	0.4	0.4%
	소계		7	3	0	10		
	총계		874	1359	67	2300		
			38%	59.1%	2.9%			

‘V下’구조의 기능은 전반적으로 ‘下’의 기본적인 하강이동을 나타내는 기능(‘V下1’)과 어법화를 거쳐 행위완성을 나타내는 기능(‘V下2’)으로 크게 분류된다. 본고의 말뭉치자료 분석 결과, ‘V下1’과 ‘V下2’기능의 사용비율이 각각 51.6%와 48%로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속]의 의미특징을 지닌 상(Aspect)적 기능(‘V下3’)은 존재하지 않았다. 형용사와 결합하여 상태의 완성(변화)를 나타내는 ‘A下3’기능의 경우 소수의 예문이 발견되었으나 목적어의 음절이나 문체, ‘AO’구조의 어휘화 정도와 관련되어 사용상의 제약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V下1’중에서 행위자 주체의 이동을 나타내는 ‘V下1-1’와 객체의 이동을 나타내는 ‘V下1-4’가 높은 빈도를 나타낸 반면 ‘V下1-3’과 ‘V下1-5’은 비교적 낮은 사용빈도를 나타냈다. 공간적 상하위치가 투영된 추상공간상의 이

9) ‘V下2-3’함몰의미는 2300개 구문 중 예문이 1개에 불과하여 실제비율이 0.04%이지만 소숫점 한자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 0.1로 표기하였다.

동을 나타내는 'V下1-5'기능은 그 결합동사가 비교적 제한적이기 때문에 낮은 사용빈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吃、囓、咽、呑'등 비교적 사용도가 높은 동사와 의미를 표현한 'V下1-3'의 수치는 '下、下來、下去'의 관계 속에서만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馬慶株(1997)는 [+소실(消失)]의 의미자질을 지닌 동사의 경우 '下去'와만 결합하고 '下來'와는 결합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는 '來、去'의 참조점이 갖는 의미 때문에 형성된 비대칭구조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고의 조사결과 'V下'구조는 비록 사용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섭취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단지 목적어의 음절이 다음절이거나,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구조의 경우 대부분 'V不下'구조를 가진다는 제약조건이 존재하여 섭취의미를 표현할 경우 'V下'보다는 'V下去'구조를 더 선호함을 알 수 있다. 조사결과 목적어를 가진 'V下1-3'예문 중에서 목적어가 3음절이상인 예문이 72%이고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구조의 67%가 가능보어 형식인 'V不下'구조임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한다.

행위의 완성을 묘사하는 'V下2'의 기능에도 이러한 사용빈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함몰, 가압의미를 나타내는 'V下2-3'、'V下2-4'는 아주 낮은 사용빈도를 나타냈는데 이 역시 '下、下來、下去'의 관계로만 설명할 수 있다. 'V下2-3'의 함몰의미나 'V下2-4'의 가압의미는 'V下'구조와 'V下來'구조에서 사용도가 아주 낮은 반면 'V下去'구조에서는 사용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대칭 구조는 '來'와 '去'가 가지는 은유의미의 차이로 인한 결과이다. '來'와 '去'는 공간적으로 화자를 참조점으로 삼아 행위의 이동방향을 묘사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기능이 심리적 영역으로 투사될 경우 정상상태를 참조점으로 하여 비정상상태에서 정상으로의 변화는 '來'로, 정상상태에서 비정상상태로의 변화는 '去'로 표현된다. 이러한 현상은 범언어적 현상으로 한국어와 영어에도 동일하게 존재한다. 이기동(1977)은 "그 사람 입이 돌아갔다"는 정상상태에서 입이 비정상상태로 변화했음을 나타내며 "그 사람 입이 돌아왔다"는 비정상상태에서 정상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박주영(2010)은 말뭉치자료를 이용한 영어동사 'come'과 'go'의 언어분석을 통해 긍정적 의미에서 'come'이 'go'보다 사용빈도가 높은 편이었으

며 부정적 의미의 경우 'go'의 사용빈도가 월등하게 높다는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로 인해 정상상태에서 비정상상태로 함몰되는 '凹'는 '凹下'나 '凹下來'보다 '凹下去'의 사용빈도가 더 높고, 부정적인 색채를 띄는 압박의미의 경우 '下去'와의 결합이 더 자연스러운 결과를 낳은 것이다. 수용의미의 'V下2-5'은 'V下來'나 'V下去'구조에서 사용될 수 없으며 전체 예문 18개 중에서 12개(67%)가 가능보어형식의 'V不下'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보아 'V下'구조에만 존재하는 고정격식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리라 판단된다.

이같이 'V下'구조는 '下'가 가지는 상하이동 의미 외에도 어법화를 거쳐 생성된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 의미를 아무런 변별없이 일괄적으로 'V下'상용의미로 규범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이 본고의 분석결과 밝혀졌다. 이들 중 일부 기능은 'V下'구조에서 우세한 분포를 보이지만 일부기능은 'V下'구조보다는 참조점을 내포한 다른 구조에서 더 우세한 빈도를 나타내며 이는 '來'와 '去'의 참조점이 가지는 은유적 의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IV. 결론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동사의 의미항목에 따라 분류되었던 'V下'구조의 의미를 '어법화', '은유'라는 생성기제를 이용하여 분류, 설명하고자 하였다. '下'의 어법화를 고려하여 [+방향][+이동]의미특징에 따라 'V下1'과 'V下2'로 크게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V下1'은 '下'의 공간적 이동을 바탕으로(base)으로 하여 그 안에서 상하이동 과정에 윤곽(profile)을 부여한 것으로 이를 통해 모종의 주체(혹은 객체)가 동작행위를 통해 실제 공간에서 하강 이동함을 서술하게 된다. 이러한 'V下1'의 공간이동 과정 중에서 일부분에 윤곽을 부여할 경우 '은유'의 기제를 통해 또 다른 의미를 묘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V下2'이다. 'V下2'는 공간은유의 기준(공간적 개념)영역과 목표(비공간적 개념)영역간의 사상을 통해 생성된다. 예를 들어 하강이동의 시작은 본체에서 일부가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는 분리의미('V下2-1')를 은유하고



이동의 종료는 분리의 상대적인 의미인 획득('V下2-2')이나 행위의 결과('V下2-6'), 고정('V下2-7')의 의미를 은유한다. 또한 중력하에서 이루어진 탄도체의 하강이동이 압력('V下2-4')이나 그 결과인 함몰의미('V下2-3')를 생성하기도 한다. 일부 방향보어의 경우 [+지속]의 의미를 지닌 상(Aspect)적 기능이 존재하는데 'V下來'와 'V下去'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그러나 조사결과 'V下'는 행위지속의 시간구간(時段)을 설정하기 위한 참조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갖지 못한다. 반면, [+지속]의 의미자질이 필수요건이 아닌 형용사와의 결합에 있어서 'A下'구조는 해당 상태로의 변화(완성)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사용빈도 아주 낮고 구조적인 제약이 존재하여 주요 기능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

본고는 상술한 'V下'의미를 모두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말뭉치자료 조사결과 이들 의미 중 일부는 'V下'구조의 사용빈도가 높지만 일부 의미의 경우 실제 사용빈도가 아주 낮고 'V下來'나 'V下去'등 다른 구조에서 사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섭취이동을 나타내는 'V下1-3', 함몰결과를 묘사하는 'V下2-3', 모종의 대상에 압력을 가하는 결과를 묘사하는 'V下2-4'의 경우 'V下'구조보다는 'V下去'구조가 훨씬 우세한 분포를 보이는데 이는 '來'와 '去'의 참조점이 공간적, 은유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이다. 본고는 이러한 차이가 궁극적으로 'V下', 'V下來', 'V下去'의 기능분화와 관련성을 가진다고 본다. 앞으로 방향보어의 의미, 기능 분류에서 있어 한발 더 나아가 실제 사용상에서 나타나는 각 기능의 사용빈도 차이, 구조와 기능간의 관계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參考文獻】

- 趙元任, 丁邦新譯, 《中國話的文法》,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1980.  
 太田辰夫, 《中國語歷史問法》,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7.  
 劉月華, 《趨向補語通釋》, 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1998.  
 房玉清, 《實用漢語語法》,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1.

- 梁銀峰, 《漢語趨向動詞的語法化》, 上海, 上海師範大學出版社, 2007.
- Hopper & Traugott, 김은일의 2인 譯, 《문법화》, 서울, 한신문화사, 1999.
- Langacker, 김종도 譯, 《인지문법의 토대》, 서울, 박이정, 1999.
- 이기동 編, 《인지언어학》, 서울, 한국문화사, 2000.
- 馬慶株, 〈“V來 / 去”与現代漢語動詞的主觀范疇〉, 《語文研究》第4期, 1997.
- 韓 蓉, 〈“下來”, “下去”語法化過程考察〉, 北京語言大學 碩士論文, 2004.
- 盧 莉, 〈趨向補語“下”的語法化過程及相關句法語義問題研究〉, 上海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6.
- 이기동, 〈동사 「가다」, 「오다」의 의미분석〉, 《말》 제2집, 1997.
- 강병규, 〈중국어 언어자료-말뭉치 구축현황과 활용 방법 고찰〉, 《중국어언어논총》 제35기, 2007.
- 박주영, 〈직시적 이동동사 come과 go의 의미연구: 인지언어학적 분석〉, 충남대학교 석사논문, 2010.

### 【中文提要】

本文根據認知理論，對現代漢語“V下”的意義進行分類，並通過語料分析，了解實際使用情況。

本文首先根據〔+方向〕和〔+位移〕意義特征，把“V下”分為“V下1”和“V下2”兩大類，然後利用概念基(base)、側面凸顯(profile)及認知域(domain)概念，給“V下1”和“V下2”下分次類。

語料分析的結果如下：趨向補語“下”大多和單音節動詞結合，隨着“下”語法化程度的加深(“V下1-1”至“V下2-7”)，能與“下”相結合的“V”，其範圍從動態動詞擴展到靜態動詞乃至形容詞。在“V下”所表的衆多意義之中，適用於“V下去”結構的“V下1-3”(吃類意義)的使用頻率較低，適用於“V下去”結構的“V下2-3”(凹陷意義)和“V下2-4”(加壓意義)的例子寥寥無幾。這表明，“V下”義有主次之分，這與參照點(“來”，“去”)的空間、隱喻意義息息相關。

**【主題語】**

趨向補語, 'V下', 語法化, 認知理論, 語料庫分析

투고일: 2011. 1. 23 / 심사일: 2011. 2. 1~2. 12 / 게재확정일: 2011. 2. 15